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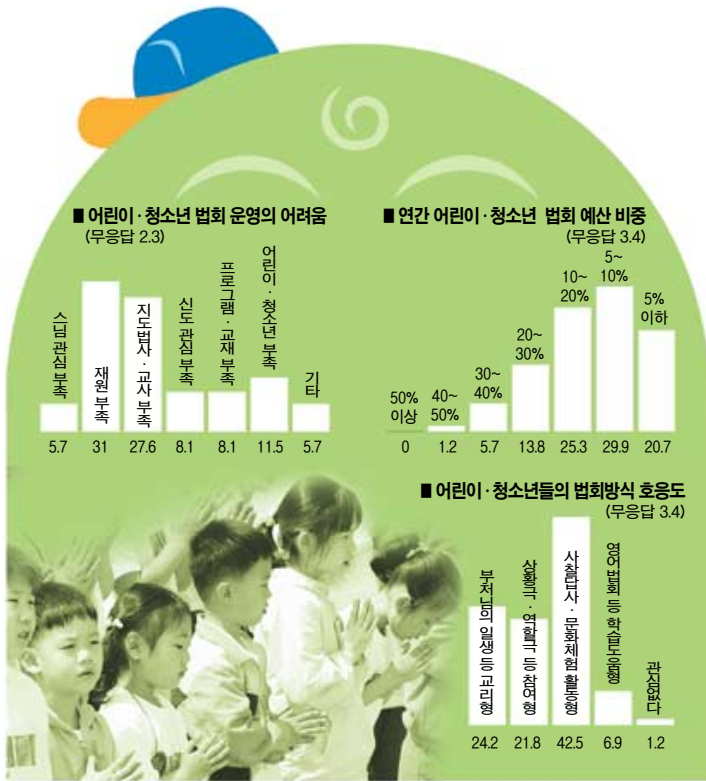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불자감소... 대안은 새싹포교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돈도 사람도 턱없이 부족”



중요인구증가에 비해 불자수가 제자리 걸음인 주된 요인은 새싹 포교에 대한 '외면'이다. 현대불교신문은 사찰의 어린이·청소년법회 실시 현황과 외면의 이유를 긴급전화설문으로 파악해 보았다.

설문조사대상 사찰 480곳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사찰 87곳에 대해 법회 운영실태를 분석했다. 이들 사찰의 절반이상은 10~50명(58.7%)의 학생들로 법회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법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예산 부족(31%)과 지도법사 및 지도교사 부족(27.6%), 참여 학생 수 부족(11.5%) 등으로 법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과연 사찰은 전체 포교예산의 어느 정도를 어린이·청소년 법회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을까? 법회운영의 기본 사항인 지도법사와 지도교사 등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 것일까? 어린이·청소년 법회의 현황을 낱낱이 살펴봤다.

긴급전화설문 : 어린이·청소년법회 현주소는?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들은 재원 부족(31%)과 지도법사 및 지도교사의 부족(27.6%) 등의 이유로 법회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히는 재원에 대한 질문에서 사찰의 75.9%가 전체포교예산의 20% 이내에서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해 이를 뒷받침했다. 특히 법회 예산이 전체포교예산의 5%도 안 된다는 응답도 20.7%나 나와 과연 이 재원으로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운영여부와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해당 사찰들도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법회 예산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사찰은 4곳 중 1곳 가량인 27.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법회 예산에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답한 사찰 75%도 종단의

났다.

사찰의 45.5%는 이에대해 법회 운영에 있어 전담 지도법사와 지도교사는 절실하지만, 적절한 인력을 찾기 어려워 법회 지도자를 두고 있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재원 등의 문제로 지도자를 두기 어렵다고 토로한 사찰도 31.8%나 됐다.

이와함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법회 교재와 프로그램 부재도 심각한 문제였다. 일반적으로 사찰의 두곳 중 한곳이(54%) 부처님의 일생이나 가르침들을 설명하고 찬불가를 함께 부르는 방식으로 법회를 진행하는데, 이에 대한 적합한 교재나 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또한 별다른 교재 없이 법회를 진행하는 곳도 8.2%나 됐다.

사찰의 42.5%가 아이들이 사찰당사와 문화체험 등의 체험형 법회에 관심이 높고 참여하고 싶어한

법회운영 힘든 이유

재원부족 31% 교사부족 27.6%

새싹포교 예산 책정

포교예산의 20% 미만... 76%

직·간접적인 지원을 원한다고 답해,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찰들이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법회 예산 비중에 대해 부족하다고 답한 사찰들의 90%이상이 어떠한 형식이든 종단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재원부족 말고도 사찰들은 지도법사와 지도교사 부족도 법회 운영을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회를 이끌어가는 지도법사와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호흡하고 의사소통할 지도교사를 제대로 갖춘 곳은 절반도 채 안 되는 47.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도법사와 지도교사를 갖추지 못한 채 주먹구구식의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도 13.8%나 돼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비전문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체험형 법회를 진행하는 곳은 9.2%에 불과했다. 법회가 아이들의 욕구와 흥미를 무시한 채 사찰 및 담당 지도자의 편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의 절반가량이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에 대한 교육형 법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율성을 묻는 질문에서 체험형 법회보다 18.3%나 낮은 24.2%가량만이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는 법회진행 방식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상황극이나 역할극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활동형 법회와 영어법회 등 학교교육과 연관되는 법회들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좋다는 의견도 28.7%나 돼 아이들의 학습능력을 발달시키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경 기자 lipck@buddhapie.com

2004 new doota floor guide

B2 Luxury Gallery 최고급 명품 브랜드, 고급 패션, 인테리어,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	1F The 1st Avenue 다양한 브랜드, 신상품, 패션,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	5F Accessory Street 패션 액세서리, 가방, 신발, 화장품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	8F Snack & Coffee AM / PM / 어린이 놀이터
B1 Character Zone 패션, 생활용품, 선물세트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	2F Career Island 직업 관련 정보, 취업 정보, 취업 준비서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	6F Kids Land 어린이 놀이기구, 어린이 도서, 어린이 생활용품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	9F Food Court 다양한 브랜드 음식점
	3F Dandy Club 패션 액세서리, 가방, 신발, 화장품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	7F Living Station 생활용품, 생활용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브랜드 상품	10F Beer Pub / Bistro 생啤 & 레스토랑

OPEN | AM 10:30 CLOSE | AM 05:00 경기/충주 | 하루 18PM 11:00~13PM 07:00

Fast & First doota!

설문내용 및 응답 통계(총 응답 사찰 480곳)

필수사항 * 귀 사찰이 위치한 지역은? 1 서울-57-11.9% 2 인천-경기-62-12.9% 3 강원-41-8.5% 4 대전-충남-55-11.5% 5 충북-45-9.4% 6 대구-경북-42-8.8% 7 부산-경남-56-11.7% 8 광주-전남-51-10.6% 9 전북-46-9.6% 10 제주-25-5.1% * 귀 사찰이 위치한 지역단위는? 무응답 3-0.4% 1 특별시·광역시-167-34.8% 2 시-136-28.3% 3 군-44-9.1% 4 읍·면-131-27.4%	3 한달에 한번-5-8.5% 4 여름·겨울 분할-5-8.5% 5 정기적이지만 필요에 따라 한 달-2-3.4% 3 어린이·청소년 법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응답-27-5.7% 1 반드시 필요하다-250-52.1% 2 있으면 좋다-124-25.8% 3 없어도 별 문제없다-53-11% 4 필요 없다-26-5.4% 3-1. 위의 3번 문항에서 1,2번으로 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불교발전을 위해서 새싹 불자들을 양성해야 하기-301-80.7% 2 사용행사에 가족단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38-10.2% 3 연령대별로 고른 법회를 운영하기 위해-14-3.8% 4 기타-20-5.3%	4 신도들의 관심 부족-7-8.1% 5 어린이·청소년 법회 프로그램 및 교재 부족-7-8.1% 6 하려고 해도 참여 어린이 부족-10-11.5% 7 기타-5-5.7% 6. 사찰 1년 예산 중 어린이·청소년 법회 예산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무응답-3-3.4% 1 전체포교예산의 50% 이상-0% 2 전체포교예산의 40-50%-1-1.2% 3 전체포교예산의 30-40%-5-5.7% 4 전체포교예산의 20-30%-12-13.8% 5 전체포교예산의 10-20%-22-25.3% 6 전체포교예산의 5-10%-26-29.9% 7 전체포교예산의 5% 미만-18-20.7% 6-1. 현재 어린이·청소년 법회 예산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응답-3-3.4% 1 그렇다-24-27.6% 2 다소 부족하지만 괜찮다-13-14.9% 3 부족하다-33-37.9% 4 많이 부족하다-14-16.2% 7.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지도하는 전담지도법사·스님이나 지도교사가 있습니까? 무응답-2-2.3% 1 둘 다 있다-41-47.1% 2 지도법사만 있다-12-13.8% 3 법회 지도교사만 있다-20-23% 4 둘 다 없다-12-13.8% 8. 법회 운영 방식과 지도교사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응답-6-13.6%
---	---	--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불자감소... 대안은 새싹포교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애들 안오니 법회 못하지”

긴급전화설문 : 사찰의 새싹포교 외면 이유는?

조사 결과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의 비율이 10%대로 낮게 나온 것은 이미 예견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대불어의 조사 결과인 9.4%(어린이법회 실시 사찰만) 보다 다소 높은 수치지만, 두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여는 사찰이 10곳중 1곳에 불과하다. 포교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찰이 어린이·청소년 불자 양성을 소홀히 생각하는 근시안적인 태도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480개 사찰 가운데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지 않는 392개 사찰들은 그 주된 이유로 '참석하는 어린이·청소년이 적어서(29.8%)'라고 답했다. 사찰이 찾아가는 포교, 적극적인 포교 보다는 알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포교를 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또 이 질문에는 '재원 및 운영상의 문제'와 '지도법사 또는 지도교사의 부재'를 이유로 꼽은 사

찰이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서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포교에만 급급할 뿐 미래불교를 짊어질 어린이·청소년 불자 양성은 외면하고 있음이 잘 드러난다.

이에 대해 어린이·청소년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점이 없기 때문에 사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열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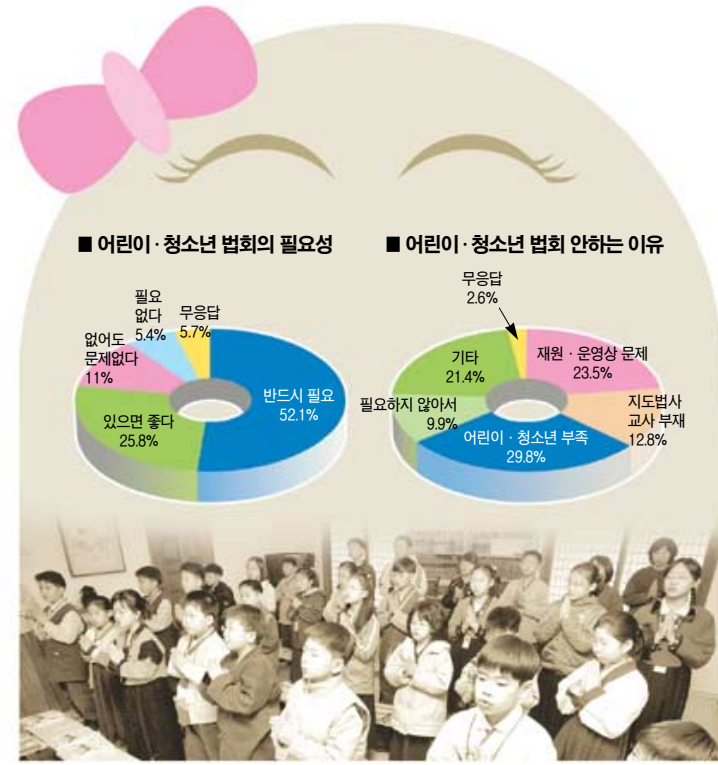
이 외에도 종단으로부터 지원 받고 싶은 분야로는 23.7%가 재원을, 18.9%가 프로그램 등 교육자료를, 17.9%가 지도법사와 교사를 꼽았다. 이 세 가지를 모두 바란다는 응답도 37.1%나 있었다.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중요한 요소인 재원과 지도인력, 프로그램 등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의 반증이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의 응답이 비슷

청소년 법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인천·경기(27.4)와 서울(26.3)지역이 평균을 웃돌았다. 제주(4.0)가 가장 낮았고 전북도 4.3%에 해당하는 사찰만이 청소년 법회를 열고 있었다. 어린이 법회와 달리 강원(12.2), 광주·전남(11.8)이 대구·경북(9.5), 부산·경남(7.1)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별시·광역시 등 도시지역과 군 등 농촌지역간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법회의 경우 도시지역은 28.7%가 법회를 열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농촌은 13.7%만이 법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소년 법회의 경우 도시는 20.4%의 사찰에서 법회를 열고 있었지만, 농촌은 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9%의 사찰에서 법회가 열리고 있었다.

또 어린이·청소년 법회의 필요성 인지에 따른 향후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응답자 가운데 36.1%가 전망을 밝게 내다본 반면 '없어도 별 문제없다' 또는 '필요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5.1%만이 긍정적으로 꼽았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참석자 없어 법회 안해 30%

찾아가는 포교 열의 부재 반영

향후 전망, 긍정 30% 부정 33.5%

찰도 23.5%와 12.8%나 돼 어린이·청소년 포교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을 반영했다.

그러나 어린이·청소년 법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7.9%에 달했다. '없어도 문제없다'와 '필요 없다'는 응답은 16.4%에 불과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 불자 양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내 사찰은 하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린이·청소년 법회가 필요한 이유로 10명 가운데 8명이 새싹불자를 양성해야 불교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점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로 꼽은 문제가 해결될 경우 법회를 개설할 의향이 있는지는 질문에서 58.9%의 사찰만이 그렇다고 답했을 뿐, 36.2%에 해당하는 사찰은 운영할 의

한 수준을 유지했다.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는 사찰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30.2%였고,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답변은 33.5%가 나왔다. 지금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사찰은 32.1%였다.

지역·도시와 농촌 등 지역 차이

이번 설문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 사찰분포가 상당한 지역적 편차를 보였다. 어린이 법회의 경우 인천·경기지역의 사찰이 37.1%로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6%가 운영한다고 응답한 서울이 2위, 대구·경북(16.7) 3위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은 4.3%, 광주·전남은 5.9%, 충북 11.1%로 평균18.1%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설문내용 및 응답 통계(총 응답 사찰 480곳)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4-9.1% | 2) 필요성은 인지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답당 지도교사를 두기 어렵다-14-31.8% | 3) 어린이·청소년 전담 법사와 지도교사가 필요하지만, 적합한 인력을 찾기 어렵다-20-45.5% | 4) 기타-0-0% | 9) 어린이·청소년 법회는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무응답-4-4.6% | 1) 부처님의 일생 및 가르침에 대한 교육 및 전법가 등의 학습형-47-54% | 2) 상황극이나 역할극 등을 활용한 활동형-14-16.1% | 3) 사찰당사 등을 위주로 한 그룹 참여형-8-9.2% | 4) 영아법회 등 교과학습을 고려한 교육형-4-4.6% | 5) 법문 위주의 성인법회와 유사한 형태-10-11.5% | 10)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사용되는 교재는 무엇입니까? 무응답-2-2.3% | 1) 시편되고 있는 성인용 경전 및 전불가-3-3.4% | 2) 어린이용 경전 및 전불가-21-24.1% | 3) 풍자나 포교원에서 발행한 어린이법회 자료집-26-29.9% | 4)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법회자료집-17-19.5% | 5) 지도법사나 법회 지도사가 개인적으로 만든 교재-11-12.6% | 6) 별다른 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7-8.2% | 11) 어린이·청소년 법회운영과 일반 성인신도들의 법회 참석률이 연관성이 | 1)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2-2.3% | 2) 어린이·청소년 법회 개설후 일반 신도들의 법회 참석률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11-12.6% | 2) 골짜골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신도들의 참석률이 증가했다-36-41.4% | 3) 어린이·청소년 법회 개설이 일반 신도들의 법회 참석률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36-41.4% | 4) 어린이·청소년 법회 개설후 일반 신도들의 법회 참석률이 낮아졌다-2-2.3% | 12) 어린이·청소년들은 어떤 형식의 법회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합니까? 무응답-3-3.4% | 1) 부처님의 일생 및 가르침에 대한 교육-21-24.2% | 2) 상황극이나 역할극 등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법회-19-21.8% | 3) 사찰당사, 문화체험 등 활동적인 법회-37-42.5% | 4) 영아법회 등 학교공부와 연관이 되는 법회-6-6.9% | 5) 어떠한 법회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1-1.2% | *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하지 않는 사찰에 한해 대답해주시시오. | 13)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응답-10-2.6% | 1) 재원 및 운영상의 문제로-92-23.5% | 2) 지도법사 스님과 지도교사의 부재-50-12.8% | 3) 참석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적어서-117-29.8% | 4)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9-9.9% | 5) 기타-83-21.4% | 13-1. 위에 기입한 문제점이 해결된다면,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개설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무응답-19-4.9% | 1) 예-231-58.9% | 2) 아니오-142-36.2% | *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운영·비운영과 관계없이 모두 응답해주시시오. | 14) 어린이·청소년 법회 운영에 종단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원하십니까? 무응답-21-4.4% | 1) 그렇다-291-60.6% | 2) 아니다-167-35% | 14-1. 만약 지원을 원한다면 어떤 종류의 지원을 바라십니까? 무응답-7-2.4% | 1) 재원지원-69-23.7% | 2) 무료 지도법사와 법회 지도교사 지원-52-17.9% | 3) 법회 프로그램 등의 교육자료 지원-55-18.9% | 4) 위의 세가지 모두-106-37.1% | 15) 어린이·청소년 법회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응답-20-4.2% | 1) 어린이·청소년 포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증가해, 활기를 띠 것이다-145-30.2% | 2) 현재와 비슷하게 운영·유지 될 것이다-154-32.1% | 3) 과도한 학교교육으로 종교활동이 어린이·청소년 법회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58-12% | 4) 앞으로 종단과 사찰의 노력이 없는 한 어린이·청소년 법회는 사라질 것이다-103-21.5% |
|----------------------------|--|--|------------|---|---|----------------------------------|--------------------------------|--------------------------------|---------------------------------|--|--------------------------------|---------------------------|-------------------------------------|---------------------------------|---------------------------------------|----------------------------|--|----------------------------|---|--|---|---|--|----------------------------------|--|----------------------------------|----------------------------------|-------------------------------|---------------------------------------|---|---------------------------|-------------------------------|---------------------------------|-------------------------|----------------|---|----------------|------------------|--|--|------------------|----------------|--|------------------|---------------------------------|--------------------------------|------------------------|---|--|-----------------------------------|---|---|

사노라면...
누구에게나 힘든 날은 있지요.
'희망'은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고
시련을 준 하늘이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이 비 그치면...
맛진 날이 시작될 거예요.
웃음꽃 피는 날이 올 거예요.
내일은 당신의 해가 뜰 거예요!

...more!
고객의 내일을 위해 “더”!

대한생명
A member of the HANA Group